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송헌재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한국 가계의 자산구성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자산의 구성은 33.2% 수준에 불과하여 미국(70.0%), 일본(63.4%), 영국(54.1%) 등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음
- ☐ 2021년 기준,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 및 예금(43.4%) 중심 구조로, 금융투자상품 비중(25.5%)이 주요 선진국(미국 41.0%)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 금융투자 비중이 낮은 구조는 가계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므로,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 구성을 비교·분석하고, 금융투자상품 확대를 통한 소득·자산 증대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연구 내용

- ☐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특징 분석
 -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내부 구성(현금 및 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연금 등) 시계열 추이 분석
- ☐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금융자산 구성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비중 비교
 - 금융자산 내부 구성(현금 및 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연금 등) 비교 및 특징 도출
- ☐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2.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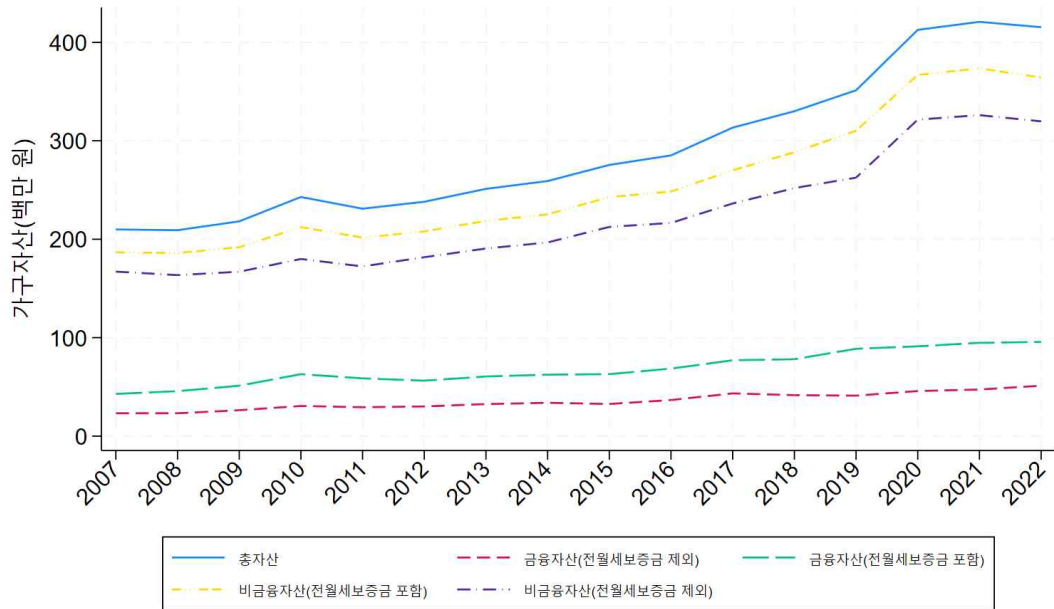
- ☐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 특징 분석을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음
 -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자료가 필요함
 - 재정패널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축해 온 패널자료로서 가계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와 더불어 가계의 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분석에 활용하였음
 - 표본조사이므로 가계의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을 산출하였음
 - 재정패널자료는 2008년에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16차 자료까지 설문 이 완성되었으며,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자료임
 - 그러나 문항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분석기간은 2007년~2022년임
- ☐ 주요국의 가계 자산 구성 분석은 각 국가의 국민대차대조표와 자금순환 통계 등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음
 - 한국: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국민대차대조표
 - 미국: B.101 Balance Sheet of Household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alance sheet
 - 일본: SNA Annual Report on National Accounts for 2020 Summary, 자금순환통계
 - 영국: The UK national balance sheet
 - 호주: 5232.0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Finance and Wealth, TABLE 35. Household Balance Sheet, Current prices

3.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 특징 분석

- ☐ [그림 1]은 재정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나타낸 연도별 가계 총자산,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을 나타냄
 - 가계 총자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추세는 비금융자산으로 인한 것
 - 가계 비금융자산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계 금융자산은 거의 증감이 없음
 - 비금융자산이 대부분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가치의 증가가 가계 총자산의 증감으로 즉각 이어지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그림 1] 연도별 가계 총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자료: 재정패널 1차~16차

- <표 1>은 재정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연도별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비중을 요약한 것임
- 가계 자산의 80%가 비금융자산이며, 이는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비금융자산임을 보여줌
 - 가계 금융자산은 분석 첫해인 2007년 16%에서 마지막 해인 2022년 23%로 7%p 증가하였음
 - 가계 자산의 다변화가 점차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가계 금융자산의 비중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2016년과 2018년에도 가계 금융자산의 비중이 20% 이상이였으나 다음 해 다시 20% 미만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지는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그런데 전월세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한국 가계의 연도별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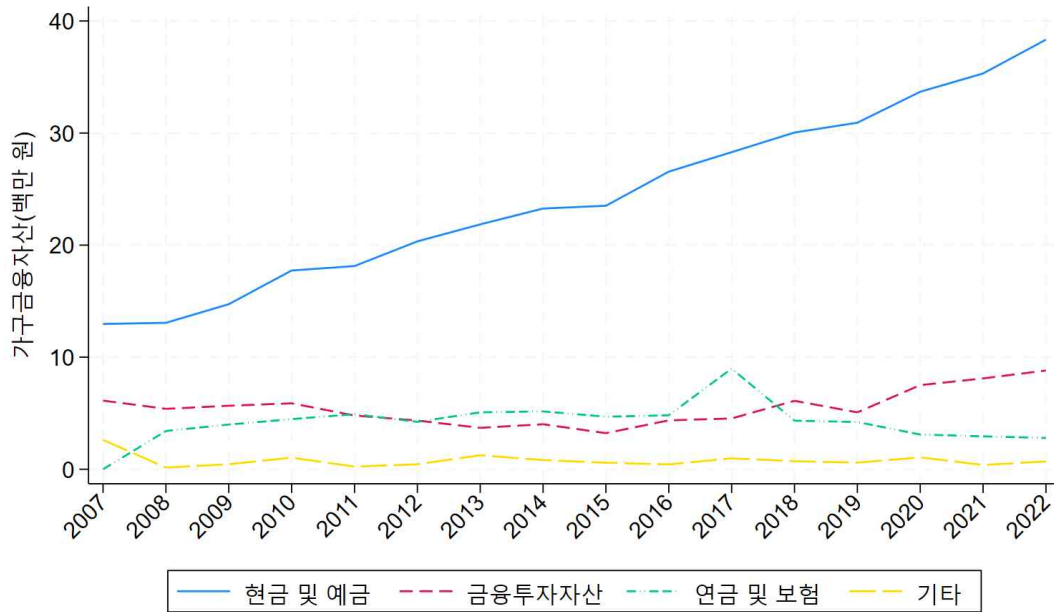
	전월세보증금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		전월세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2007	15.98%	84.02%	43.42%	56.43%
2008	15.98%	84.02%	43.58%	56.37%
2009	17.66%	82.34%	45.36%	54.61%
2010	17.98%	82.02%	45.85%	54.13%
2011	19.09%	80.91%	46.53%	53.47%
2012	18.08%	81.92%	44.62%	55.37%
2013	19.43%	80.57%	45.67%	54.33%
2014	19.72%	80.28%	45.85%	54.15%
2015	19.71%	80.29%	45.19%	54.81%
2016	20.77%	79.23%	46.35%	53.65%
2017	19.34%	80.66%	43.63%	56.27%
2018	20.05%	79.95%	44.36%	55.64%
2019	19.90%	80.10%	46.76%	53.24%
2020	20.39%	79.61%	46.13%	53.87%
2021	21.65%	78.35%	47.96%	52.04%
2022	22.60%	77.40%	47.95%	52.05%

자료: 재정패널 1차~16차

□ [그림 2]는 재정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나타난 연도별 금융자산 내 자산별 금액을 나타냄

- 가계 금융자산을 현금 및 예금, 금융투자자산, 연금 및 보험, 기타의 네 가지로 나누어 추이를 살펴보았음
-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경우 다른 자산보다 금액이 커서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대상으로 하였음
-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현금 및 예금이며, 나머지 자산은 1천만 원 이내로 나타남
- 현금 및 예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타 자산은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양상을 보임
- 전반적인 가계 자산의 증가가 가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동시 증가로 인한 것이지만 가계 비금융자산의 증가가 금융자산의 증가보다 높아서 [그림 1]에서 가계 자산의 증가가 주로 비금융자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그림 2] 한국 가계의 연도별 금융자산 내 자산별 금액



자료: 재정패널 1차~16차

□ <표 2>와 <표 3>은 재정패널자료를 기반으로 나타낸 연도별 금융자산 내 자산별 비중을 나타냄

- 자산별 비중을 산출하면서 각 가구에서 금융자산 내 각 항목의 비율을 산출한 뒤 가구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것이므로 비율의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금이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분석 초기인 2007년 예금의 비중은 67%였으나 2022년에는 85%였음
- 펀드 및 보험 관련 금융자산은 초기에 비중이 높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주식, 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마련펀드, 대여금, 기타 자산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에 치중되어 있어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여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거나 보험 혹은 연금에 가입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보다는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표 2〉 한국 가계의 연도별 금융자산 내 자산별 비중

	예금	펀드	주식	대여금	채권	주택 ¹⁾	보험 ²⁾	연금 ³⁾	기타
2007	66.71%	8.94%	5.45%	0.26%	3.18%	3.67%	-	-	11.89%
2008	63.58%	8.27%	4.86%	0.07%	2.53%	3.13%	17.29%	-	0.48%
2009	65.97%	6.10%	4.37%	0.32%	2.05%	3.45%	16.74%	-	0.99%
2010	70.03%	4.76%	4.23%	0.17%	1.60%	2.78%	15.74%	-	0.68%
2011	69.91%	3.24%	3.55%	0.20%	0.99%	2.85%	18.59%	-	0.67%
2012	77.44%	2.48%	3.12%	0.11%	0.93%	1.90%	13.50%	-	0.67%
2013	77.59%	2.00%	2.55%	0.06%	0.87%	2.07%	14.31%	-	0.56%
2014	79.60%	1.26%	2.75%	0.19%	0.63%	2.19%	12.62%	-	0.75%
2015	82.17%	1.23%	2.38%	0.46%	0.58%	1.89%	7.55%	3.36%	0.38%
2016	82.30%	1.31%	2.59%	0.23%	0.53%	1.65%	7.47%	3.45%	0.48%
2017	82.25%	1.14%	2.70%	0.11%	0.68%	1.72%	6.72%	4.19%	0.52%
2018	85.28%	1.24%	2.31%	0.08%	0.54%	2.08%	4.57%	3.30%	0.59%
2019	84.71%	1.09%	3.09%	0.10%	0.31%	3.03%	4.17%	3.17%	0.35%
2020	84.06%	0.83%	5.58%	0.09%	0.29%	3.38%	2.69%	2.25%	0.38%
2021	83.77%	0.63%	7.22%	0.04%	0.24%	3.47%	1.93%	2.01%	0.27%
2022	85.22%	0.36%	6.37%	0.10%	0.21%	3.16%	1.60%	1.96%	0.31%

주: 1) 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마련펀드를 의미함

2)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을 포함하며, 1차연도에는 기타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었음

3)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IRP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연금저축을 의미하며, 1~8차차연도에는 기타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었음

자료: 재정패널 1차~16차

〈표 3〉 한국 가계의 연도별 금융자산 내 자산별 비중

	보통금	예금	펀드	주식	대여금	채권	주택 ¹⁾	보험 ²⁾	연금 ³⁾	기타
2007	30.5%	35.2%	4.4%	2.9%	1.7%	0.1%	1.4%	-	-	6.3%
2008	31.5%	35.5%	4.3%	2.7%	1.2%	0.1%	1.0%	9.0%	-	0.3%
2009	31.8%	37.4%	3.3%	2.6%	1.2%	0.2%	1.2%	8.7%	-	0.5%
2010	33.3%	39.6%	2.4%	2.4%	1.0%	0.1%	1.0%	8.6%	-	0.4%
2011	31.6%	40.7%	1.8%	2.2%	0.6%	0.1%	0.9%	10.1%	-	0.3%
2012	30.0%	45.2%	1.5%	1.9%	0.6%	0.1%	0.7%	7.5%	-	0.4%
2013	29.7%	45.9%	1.1%	1.6%	0.5%	0.0%	0.7%	8.3%	-	0.3%
2014	29.0%	48.0%	0.8%	1.7%	0.4%	0.2%	0.6%	7.4%	-	0.4%
2015	27.9%	50.0%	0.8%	1.5%	0.4%	0.3%	0.9%	4.4%	2.2%	0.3%
2016	28.4%	50.4%	0.8%	1.6%	0.3%	0.2%	0.6%	4.5%	2.3%	0.2%
2017	28.0%	50.5%	0.7%	1.7%	0.4%	0.1%	0.7%	4.0%	2.6%	0.2%
2018	28.7%	54.0%	0.8%	1.5%	0.3%	0.1%	0.9%	2.9%	2.2%	0.2%
2019	31.5%	53.3%	0.8%	2.0%	0.2%	0.1%	1.1%	2.7%	1.9%	0.2%
2020	29.7%	54.2%	0.6%	3.5%	0.1%	0.1%	1.4%	1.7%	1.6%	0.2%
2021	30.3%	54.1%	0.4%	4.7%	0.1%	0.0%	1.3%	1.4%	1.5%	0.2%
2022	29.0%	56.7%	0.3%	4.4%	0.1%	0.1%	1.2%	1.2%	1.5%	0.2%

주: 1) 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마련펀드를 의미함

2)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을 포함하며, 1차연도에는 기타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었음

3)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IRP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연금저축을 의미하며, 1~8차연도에는 기타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었음

자료: 재정패널 1차~16차

4.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

1) 한국

- <표 4>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민 대차대조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비중을 산출한 것
- 재정패널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비금융자산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뚜렷하게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
- 재정패널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다른 점은 <표 3>은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표 1>은 각 가계의 자산에서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라는 점임

<표 4>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금융자산	65.2%	65.3%	66.8%	66.3%	65.2%	64.5%
금융자산	34.8%	34.7%	33.2%	33.7%	34.8%	35.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표 5>는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45%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30% 내외로 그 뒤를 이었음
 -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5% 내외로 나타남
 - 금융투자상품의 대부분은 증권이었으며,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의 비중은 낮았음

<표 5>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연말기준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소계		
2019	44.8%	18.1%	3.6%	0.1%	21.8%	32.9%	0.5%
2020	43.4%	21.7%	3.3%	0.1%	25.1%	30.9%	0.6%
2021	43.4%	23.0%	2.4%	0.2%	25.6%	30.4%	0.6%
2022	46.0%	19.4%	2.7%	0.1%	22.2%	31.1%	0.7%
2023	46.3%	21.7%	3.2%	0.1%	25.0%	28.0%	0.7%
2024	46.3%	20.3%	3.6%	0.1%	24.0%	28.9%	0.8%

주: 1) 증권에는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포함됨

2) 전월세보증금은 기타 금융자산에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미국

□ <표 6>은 미국 가계의 자산을 요약한 것임

- 미국 가계는 한국 가계와 반대로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30% 내외, 금융자산의 비중이 70% 내외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았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표 6> 미국 가계의 자산 구성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금융자산	29.8%	29.3%	30.0%	33.7%	32.7%	32.0%
금융자산	70.2%	70.7%	70.0%	66.3%	67.3%	68.0%

자료: B.101 Balance Sheet of Household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alance sheet

□ <표 7>은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보험 및 연금이 약 30%로 그 뒤를 이었으며, 현금 및 예금이 15% 내외로 낮았음
- 금융투자상품의 대부분이 증권이라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미국 가계에서 현저하게 낮았음
- 이로 미루어 보아 투자 목적 혹은 노후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고 짐작할 수 있음

〈표 7〉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연말기준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증권	채권	뮤추얼 펀드	소계		
2019	14.3%	35.5%	4.7%	10.7%	50.9%	33.9%	3.1%
2020	15.5%	37.3%	3.6%	10.5%	51.4%	30.2%	2.9%
2021	28.1%	27.8%	2.3%	10.9%	41.0%	28.2%	2.7%
2022	16.5%	39.6%	4.2%	9.0%	52.7%	27.8%	3.0%
2023	15.4%	40.4%	4.7%	9.3%	54.4%	27.4%	2.8%
2024	14.7%	42.3%	4.4%	9.4%	56.1%	26.6%	2.6%

주: 증권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 포함됨

자료: B.101 Balance Sheet of Household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alance sheet

3) 일본

□ 〈표 8〉은 일본 가계의 가계 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미국과 유사하게 금융자산의 비중이 비금융자산보다 높았음
- 비금융자산은 35% 이상, 금융자산은 60% 이상이었음
- 일본의 경우 2024년에 대한 국민 대차대조표가 발표되지 않아 2024년
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표 8〉 일본 가계의 자산 구성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금융자산	37.8%	37.0%	36.6%	37.0%	36.4%
금융자산	62.2%	63.0%	63.4%	63.0%	63.6%

자료: SNA Annual Report on National Accounts for 2024 Summary

□ 〈표 9〉는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금 및 예금이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그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국보다 금융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높았음
- 뒤이어 보험 및 연금이 25% 이상, 금융투자상품이 20% 내외로 나타남

- 현금 및 예금과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이 시기 엔저효과와 외국자본 유입, 거래소 개혁, PBR(Price-to-Book Ratio)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주식 투자자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음
- 일본 가계 역시 주식이 금융투자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주식과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증가함

〈표 9〉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연말기준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소계		
2019	53.4%	10.8%	1.5%	3.8%	16.1%	28.6%	1.9%
2020	54.6%	10.0%	1.4%	3.8%	15.2%	28.0%	2.2%
2021	53.5%	11.8%	1.4%	4.4%	17.5%	26.9%	2.1%
2022	54.3%	10.0%	1.4%	4.1%	15.5%	26.3%	3.9%
2023	52.3%	12.6%	1.5%	5.1%	19.2%	26.8%	1.7%
2024	50.9%	13.4%	1.5%	6.1%	20.9%	26.1%	2.1%

주: 2024년의 경우 금융자산과 관련한 통계는 있으나 비금융자산과 관련한 통계는 없어 <표 8>에 2024년이 빠져있음
 자료: 자금순환통계

4) 영국

□ <표 10>은 영국 가계의 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며, 2023년에는 비금융자산이 51%, 금융자산이 49%로 거의 절반이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표 10〉 영국 가계의 자산 구성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금융자산	44.9%	44.9%	46.0%	51.4%	50.7%	51.6%
금융자산	55.1%	55.1%	54.0%	48.6%	49.3%	48.4%

자료: The UK national balance sheet

□ 〈표 11〉은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영국의 경우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보험 및 연금임
- 그러나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현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9년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58%,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24.2%였으나 2024년에는 46.2%, 33.9%로 나타남
- 보험 및 연금이 감소한 폭의 대부분은 현금 및 예금의 증가로 이어졌음
-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의 대부분은 주식이었음

〈표 11〉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연말기준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소계		
2019	24.3%	14.9%	0.3%	0.1%	15.3%	58.0%	2.4%
2020	25.3%	13.9%	0.3%	0.1%	14.3%	58.0%	2.4%
2021	26.6%	15.3%	0.3%	0.1%	15.8%	55.4%	2.2%
2022	32.0%	16.2%	0.3%	0.1%	16.7%	48.6%	2.7%
2023	32.4%	16.5%	0.3%	0.1%	17.0%	48.0%	2.6%
2024	33.9%	16.8%	0.3%	0.1%	17.3%	46.2%	2.6%

자료: The UK national balance sheet

5) 호주

□ 〈표 12〉는 호주 가계의 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호주의 경우 2019년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엇비슷했으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2024년에는 비금융자산이 60%, 금융자

산의 비중이 40%였음

- 그러나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장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2〉 호주 가계의 자산 구성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금융자산	57.6%	58.4%	61.4%	61.7%	61.5%	60.4%
금융자산	42.4%	41.6%	38.6%	38.3%	38.5%	39.6%

자료: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Finance and Wealth

□ 〈표 13〉은 호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영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가계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보험 및 연금이었으며,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변화가 영국만큼 크지 않음
- 금융투자상품은 주식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음

〈표 13〉 호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연말기준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펀드	소계		
2019	20.2%	18.6%	0.1%	0.0%	18.8%	59.2%	1.8%
2020	21.6%	18.2%	0.1%	0.0%	18.3%	57.9%	2.2%
2021	21.7%	18.1%	0.1%	0.0%	18.2%	58.0%	2.1%
2022	23.7%	19.0%	0.1%	0.0%	19.1%	54.9%	2.3%
2023	23.2%	19.2%	0.1%	0.0%	19.3%	55.1%	2.4%
2024	23.0%	19.6%	0.1%	0.0%	19.7%	54.8%	2.5%

자료: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Finance and Wealth

5) 주요국 비교

□ 〈표 14〉는 2024년 기준 주요국 가계의 자산 구성을 비교한 것임

-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가 60%로 그 뒤를 이었음
- 영국은 52%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이상이었으며,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의 비중이 67%로 한국과 정반대로 나타남

〈표 14〉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2024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2023)	영국	호주
비금융자산	64.5%	32.7%	36.4%	51.6%	60.4%
금융자산	35.5%	67.3%	63.6%	48.4%	39.6%

□ 〈표 15〉는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나타낸 것임

- 금융자산 내 현금의 비중이 일본에서 51%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이 46%로 그 뒤를 이었음
- 미국의 경우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15%로 가장 낮았으나 금융투자상품 보유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음
-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영국에서 17.3%로 가장 낮았으며, 호주가 20%로 그 뒤를 이었음
- 그러나 호주의 경우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55%로 가장 높았음
-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를 통해서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호주는 은퇴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및 연금에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5〉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 (2024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2023)	영국	호주
현금·예금	46.3%	14.7%	50.9%	33.9%	23.0%
금융투자상품	24.0%	56.1%	20.9%	17.3%	19.7%
보험·연금	28.9%	26.6%	26.1%	46.2%	54.8%
기타	0.8%	2.6%	2.1%	2.6%	2.5%

-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고, 호주와 영국의 경우는 금융자산 비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금융자산의 구성에서 보험·연금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예금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여 유희 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음

- 현금은 가계의 부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금의 경우에도 그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임
- 국가 경제 관점에서도 금융자산의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비효율적임
- 따라서 가계의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자산의 구성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5. 정책 제안

1) 금융투자상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1) 배당소득세제

- ☐ **현행 배당소득세제는 이자소득과 함께 과세하며, 원천징수하고 있음**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혹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임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각기 다름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실명예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해당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가산되어 부과됨
 - 그러나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전환됨
- ☐ **정부는 지난 7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하였음(기획재정부, 2025)**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하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 104의27 신설)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

- 상이거나 배당성향 25%이상이고 직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이루어짐
- 그러나 공모 및 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등은 제외됨
 -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임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2028년 12월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적용됨

☐ 단기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 배당성향 35% 이상의 상장사에 대하여 적용
-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 2027년 결산배당이 아닌 2026년 결산배당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적용
- 한시법인 조세특례법이 아닌 소득세법 개정
- 2025년 4월 기준 대상기업은 311개

☐ 장기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분리과세 및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전체 배당소득을 분리하여 과세
- 소득 혹은 자산 등을 고려한 누진세보다는 저율의 단일세율(15%)로 과세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저축에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세후 이익을 배당으로 배분한 것인데, 여기에 다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여지도 있어 저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2) 주식 양도소득세제

☐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과 더불어 국외주식 등임
 -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및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음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됨(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
 - 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이상
 -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이상
 -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이상
 - 비상장: 4% 또는 10억 원 이상(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4% 또는 40억 원 이상)
 - 세율의 경우 대주주 여부, 국내 및 국외주식 여부, 파생상품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대주주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한 국내주식은 3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인 경우 25%(누진공제 1,500만 원)이 적용됨
 -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주식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의 경우 10%,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됨
 - 국외주식은 중소기업주식 등에는 10%, 그 밖의 주식 등에는 20%,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에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파생상품에는 10%의 단일세율의 부과됨
-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뉘고, 소득 규모,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움
 - 따라서 대주주 기준을 삭제하고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3)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단일세율 분리과세)

- 이자·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매매차익을 모두 포함하여 단일의 금융소득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득은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이 기본적으로 근로·사업소득에서 마련되므로 이미 한 차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음
 - 다만, 금융소득 창출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달성되므로 추가적인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 이론에 부합하고 정부 재정에도 기여함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 금융소득은 포괄적으로 1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개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2) 장기투자유도

- 투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단기적인 손익실현을 위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 등 지원책 마련

(1) 소득공제 장기펀드

- 이전에 출시되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조건을 완화하여 재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현재는 청년층(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최소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연 600만 원의 납입한도가 존재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함
 - 해당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총 급여액, 납입한도, 소득공제 비율 등을 상향조정하여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음
 - 어떤 조건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일지는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조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5%와 12%로 나뉨
-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액공제율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일반 계좌라면 애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셈임
- 따라서 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처럼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장기보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실 소득공제

☐ 장기보유 금융투자상품 처분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혹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상한을 적용하여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현재 매매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손실을 소득공제하는 것이 세법의 논리상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 도입으로 금융상품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연간 손실 3천불 이내의 소득공제를 실행하고 있음

3) 금융교육 강화

☐ AI와 IT 기술이 발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중

류의 사기수법이 발생하고 있음

- 스미싱(Smishing) 혹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을 통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투자권유 등을 통해 가짜뉴스 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사기가 이루어지기도 함
- 특히 최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해당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사기의 수법이 점점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음
-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일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20대 혹은 30대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전 연령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이 금융사기의 피해자의 특성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주소현·고은희, 2017) 취약계층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음

(1) 금융사기 예방교육

□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금융사기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민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외에도 20대~5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서 금융범죄와 관련한 세미나 혹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신입사원 혹은 인턴을 대상으로 각 회사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학교에서 금융교육과 실제 금융거래 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음(최현자·조혜진, 2011)
- 금융지식이 있는 경우 금융사기에 노출이 되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문찬현 외, 2025)를 고려하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가족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문찬현 외, 2025)를 고려하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의심스러운 연락 등을 받은 경우에 주위 사람들과 적극적인

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연락을 받더라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2) 금융사기 피해 시 대응 관련 교육

□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

- 누구든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피해자가 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의 경우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범죄자의 통제하에 두어서 정상적인 연락이나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청할 타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도록 사전에 고지가 필요함
- 혹은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경찰조사를 받기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편입

□ 2026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는데, 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사기에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임을 꼽을 수 있음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임
- 따라서 교육과정에 금융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현재는 고등학교과정에만 선택과목으로 포함되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때부터 투자나 경제관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발

하여야 할 것임

- 실제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도 존재하며,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사건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경고하고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교육과정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수록되어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투자처와 비정상적인 투자처를 구분하는 방법, 금융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방법, 금융투자상품 구매 방법 등임
-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의 형태로 투자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통한 사기범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AI를 이용해서 진짜 정보처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짜정보와 진짜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실제로 금융투자를 실습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각 학생이 지정된 메타버스에 캐릭터를 만들면 캐릭터에 재화를 지급하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투자를 수행해 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교육용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해당 메타버스 안에 실제 금융투자상품을 구현하고 현실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메타버스 안에서 모의투자대회 등을 진행하고, 투자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모두 그 요인을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통합이 가능하나 보편적인 금융교육을 위한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이소연, 2022)
- 더불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나 일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상품 홍보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최윤정, 2018)

참고문헌

김우찬, 라진혁 (2025), “상속세가 완화되면 주가가 상승하는가?”, 「재무연구」, 38(2), pp. 101-131.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7.31.

문찬현, 정지영, 양세정 (2025), “가족의사소통과 금융소비자역량이 금융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3), pp.189-209.

송헌재 (2023),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이소연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금융교육 표준안의 적용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pp.785-801.

주소현, 고은희 (2017),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114. - 금융사기 피해 경험과 관련 요인”, 「소비자학연구」, 28(4), pp. 89-

최윤정 (2018),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현황 인식 및 방향성 제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사회과교육」, 57(3), pp. 15-34.

최현자, 조혜진 (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2(4), pp.55-75.